



##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08년 8월

교육학석사(음악교육)학위논문

#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감상영역 비교·분석연구

- 서양음악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김 현 지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감상영역 비교·분석연구

- 서양음악 중심으로

*A Study on Comparison and Analysis of Music  
Curriculum in High School by the 7th Curriculum  
focused on western music*

2008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김 현 지

#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감상영역 비교·분석연구

지도교수 이 한 나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음악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8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김 현 지

김현지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08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년 8월

교육학석사(음악교육)학위논문

#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감상 영역 비교·분석연구

- 서양음악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김 현 지

# 목 차

## Abstract

### 국문초록

#### I. 서론

1. 연구의 목적.....1
2. 연구의 방법과 한계점.....2

#### II. 이론적 배경

1. 음악과에서의 감상교육
  - (1) 음악감상의 의의.....3
  - (2) 감상교육의 의의와 특징.....4
  - (3) 심미적 관점에서의 음악감상.....6
2.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
  - (1) 음악과 교육과정의 변천.....9
  - (2)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 분석.....11
  - (3) 심미적 관점에서의 7차 교육과정 감상영역 개선방향.....14

#### III. 고등학교 8종 교과서 감상 영역 분석

1. 교과서 구성에 따른 감상영역.....15
2. 시대별.....27
3. 작곡자별.....30
4. 장르별 .....33

#### IV. 결론.....38

#### 참고문헌



## 표 목 차

<표 1 > 현행고등학교 8종 음악교과서.....	2
<표 2 > 교학사 감상곡.....	15-16
<표 3 > 대한교과서(주)의 감상곡.....	17
<표 4 > 두산교과서의 감상곡.....	18
<표 5 > 박영사의 감상곡.....	20-21
<표 6 > 세광음악출판사의 감상곡.....	22
<표 7 > (주) 천재교육의 감상곡.....	23
<표 8 > 도서출판 태성의 감상곡.....	24
<표 9 > 현대음악출판사의 감상곡 (감상).....	25
<표 10> 현대음악출판사의 감상곡 (역사속의 음악).....	26
<표 11> 서양음악의 시대별 분류.....	29
<표 12> 감상곡의 작곡가별 분류.....	31-32
<표 13> 감상곡의 장르별 분류.....	36-37

ABSTRACT

**A Study on Comparison and Analysis of Music Curriculum  
in High School by the 7th Curriculum**

- Focused on Western Music -

Kim, Hyun Ji

Advisor: Prof. Lee Han Na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Music comes to an understanding through an open door. We need to be ready to be inspired by beautiful emotion naturally. And the first step is improving our ability of listening correctly, that is, having a good appreciation attitude.

If music is to be meaningful and beautiful, there must be value in the work and qualification in those who are listening to. These music activities are the first part when we learn music, and we can feel strong impression through listening to sound and the opportunity of studying and discussing. This paper is intended to offer right opportunities and has significance of a guide and a good activity material for adolescent students who are open minded subjects in important period.

With relevant textbooks and literatures cited, I studied the background of education. Also by analysing changes of educational process, the seventh education course, and the direction of educational revision, I closely examined music appreciations of current eight textbooks, and had them divided into time, composers, genres, and instruments partiality in order to help understand about the sphere of appreciation. That resulted that there are no direct pathways of appreciation, in addition, the question of equality between students is appearing because the difference in choosing of music among

publishers is great, which is the worst problem.

Besides, even if textbooks have the same contents, each book has its classification and terms, so makes students understoo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tudy, to improve problems there must be the standard and range of selection of appreciation, and should be reorganized to have connection from the basis step to the deepening step of appreciation. And at the same time have to offer the opportunity of direct appreciation so as to be music which can open minds and breathe warm reverberation together.

Like a saying, "Let them hear before teaching music.", We must have responsibilities as active subjects who understand and express for ourselves to do the best in acting of the education which moves people's minds.

There is no other thing that affects people's feelings better than music. So we enjoy great pleasure in it.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제 7차 교육 과정에 의한 현행 고등학교 8종 음악 교과서에 제시된 서양 음악을 중심으로 감상곡의 내용을 분석한 후 제재곡들을 시대별, 작곡가별, 장르별, 영역별로 분류 하여 분석 · 연구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론적 배경으로 음악 감상의 의의와 감상교육의 특징과 중요성을 알아보고 심미적 관점에서 음악감상과 지도방법을 알아보고 음악교육과정의 변천을 알아본 후 제 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안 7차 교육과정을 비교해 보았다. 또한 제 7차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감상교육의 본질과 음악 감상의 방법적 유형들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음악 감상에 대한 내용을 통괄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는 관련 교과서와 문헌을 통해 교육 배경을 알아보고 제 7차 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개정방향을 분석하여 감상영역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교학사, 대한교과서(주), 박영사, 세광음악출판사, 천재 교육, (주)두산과 도서 출판 태성, 현대음악출판사인 8종 교과서를 감상곡을 중심으로 시대별 작곡가별, 장르별, 악기편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각 출판사간의 감상곡의 수록, 감상방법이 각각 다르게 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감상 경로가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어느 교과서로 학습 하였나 에 따라 학습자 개인의 학습효과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를 위해 교과서 저자 및 출판사와 음악 교사들이 학생들의 음악성과 창의성 신장을 위해 감상 영역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음악과 교육과정은 제 6, 7차에 이르러 일방적으로 만들어지는 ‘주어지는 교육과정’의 틀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다양하게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sup>1)</sup> 그리하여 제 6차 음악과 교육과정을 통해 음악교육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나 좀 더 시대적 요청과 세계적 추세, 교육적 요구와 그 맥락을 같이 하도록 교육과정을 다시 개편하여 제 7차 교육과정 개정안에 이르게 되었다.<sup>2)</sup>

또한 우리나라 음악교육이 6차 교육과정 때부터 ‘심미적 음악교육’의 개념이 중요한 음악철학으로 대두된다. 그 이후 심미적 음악교육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지만, 실제 학교수업에서 심미적 음악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심미적 경험을 통해 학생 스스로 음악을 이해하고 창의적인 음악을 표현하여 학교에서 심미적 음악교육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이해 영역과 활동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논문에서 다루게 되는 감상은 활동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활동영역은 다시 가창, 기악, 창작, 감상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 감상은 음악의 표현력과 음 현상에 대한 반응력을 길러 음악적 감수성을 기르는데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은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8종 음악 교과서의 활동영역 중 감상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특히 8종 음악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양음악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분석하여 파악함으로써, 교과서 외에 어떤 곡을 더 보충하여 교육현장에 활용 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음악교사에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와 다른 교과서를 비교해 부족한 내용을 적절하게 보충 지도할 수 있고, 다양한 감상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고자 한다.

---

1) 홍후조,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실행방안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1999) 7쪽

2)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부, 교육과정 정책과, 2000)

## 2. 연구방법과 한계점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제 7차 교육과정의 감상영역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8종을 비교 분석함에 앞서 음악감상의 의의와 감상교육의 특징과 중요성을 살펴보고 심미적 관점에서의 음악감상의 지도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리고 7차 음악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제 7차 교과서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음악 교과서의 분석은 8종 교과서를 교육과정에 의해 영역별로 분류하였다. 또한 교과서 감상곡의 빈도수와 작곡자와 장르별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시대별로는 어느 시대의 곡이 제재곡으로 많이 채택 되었는지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 후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교육과정이 2007 음악과 교육과정으로 개정된 현 시점에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분석이 이루어진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현행 고등학교 8종 음악교과서는 <표 1>과 같다.

<표 1> 현행고등학교 8종 음악교과서

발행연도	출판사명	저자명
2004년 3월 1일	교학사	정영택, 허화병
	대한교과서	김성수, 이성재, 김영목
	두산	이홍수, 황병훈, 이성훈, 김향정
	박영사	이강률, 주광식, 김금수, 황선
	세광	고춘선, 홍종건
	천재교육	백병동, 최현, 문경혜, 홍기문, 김은하
	태성	서한범, 주대창, 홍수진, 신주연
	현대	윤경미, 문진

## II. 이론적 배경

### 1. 음악과에서의 감상교육

#### (1) 음악 감상의 의의

감상(appreciation)의 어원은 라틴어의 'appretio'에서 유래된 말로 ‘평가한다. 감상한다’ 라는 뜻이며 예술작품을 음미하고 그 미적 내용을 즐기며 이행하는 체험을 말한다<sup>3)</sup>. appreciation을 음악용어사전<sup>4)</sup>에서 찾아보면 올바른 인식, 진가의 감정, 감지, 감상, 음미, 이해, 비평, 감사, 존중 등의 많은 의미가 있다. ‘음악을 감상한다’ 라고 함은 음악 속에서 미적 상태를 마음으로 느끼고 그 속에 있는 창조성과 그것을 형성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음악 속에 내재된 인간의 본성에 접근하여 예술적 감동을 얻음으로 인해 정서적인 인간이 되는 인간 성장의 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토대로 음악 감상이란, 예술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작품의 형식이나 내용을 즐기며 이해하는 주체적·능동적 행위이며 감각적·정신적 수용 활동을 통해 악곡의 음악미를 마음속에 새기고 음악 창조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마음속에 내재된 인간성을 발견하려는 활동이다. 즉 음악 감상교육이란 ‘조직화된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의미 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sup>5)</sup>

음악을 감상한다는 것은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청취하여 음악의 실체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감상의 기회로 음악을 사랑하는 풍요로운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으며 그 음악적 감수성으로 보다 더 깊이 있는 예술적 의미를 이해하는 경험이 되어야 한다. 음악 감상은 단순히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고 즐기는 차원을 넘어 작품의 내용을 음미하고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감상은 단순히 듣는다는 의미만으로는 부족한 것이다. 음악을 향수함에 있어 어떤 차원에서 접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고도 본질적이 문제가 된다. 즉, 진정한 음악 감상의 수용은 단순히 음악을 듣고 느끼고 즐기는 감각적·수용 상태인 “들리는” 음악에 머물지 않고 음악과 교감하고 더 나아가 관조적 자의식의 외적 집중을 통한 “듣는” 음악으로 체험될

3) 음악감상은, 음악을 음악으로서 듣는 주체적, 능동적 행위이다. H. riemann은 학위 논문 (음악청에 대하여)에 음악청이 음악에 대한 1:1의 자극이 아니라 음악에 포함된 음악적 논리를 파악하는 주체적 행위라 지적했다.

4) 박세원, 음악용어사전 (세광출판사 1995) 41쪽

5) 유덕희, 음악교육학 개론 (학문사,1973) 60쪽

때 비로소 깊은 감동 및 예술적 성취가 생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음악 감상은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영역이며 음악을 이해하며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또한 인간의 감정을 나타낼 수 있고 마음 속 깊이 작용하는 에너지가 된다. 그런 이유로 음악 감상교육은 그 모든 삶의 과정에 근간이 되어 중요한 활동이라 하겠다.

## (2) 음악 감상교육의 의의와 특징

오늘날의 음악교육은 학교를 비롯하여 가정이나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형태로 행하여지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각종의 형태로 행해지는 음악교육 중에서도 가장 조직적이고 전통적인 것은 학교에서의 음악교육인 것이다.

학교에서의 감상 교육은 학생들이 단순히 음악을 듣는 일에서 나아가 음악을 감지하여 듣는 일로 이끌어 좀 더 차원 높게 음악을 능동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물론, 음악을 단순히 듣는 것도 결코 무의미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상이 이루어지는 데는 ‘훈련된 귀’가 요구되는 만큼 음악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즉 음악성을 길러 준다는 것은 감상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일의 하나이다. 또한 감상 능력은 소질 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적으로 성장하여 가는 것이므로 학교 교육과정에서 음악 감상 교육은 음악교육의 필수적 과정이다.

음악 감상은 음악을 즐기거나 이해하는 감상자의 태도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즉, 음악을 듣는 사람의 경험, 지식, 감수성 등에 의한 것이다. 음악을 올바르게 듣는다는 것은 주의 깊게 음악을 듣는다는 것을 말한다. 감상에 있어서 이해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음악적 이해란 음을 통해서 음악을 구성하고 있는 음의 질서를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리듬의 움직임 느끼고 선율을 파악하며, 강약이나 음색을 듣고 구별하면서 전체의 구조를 파악해서 음악을 듣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들려오는 음들의 직접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음악적 이해는 감상지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면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음악에 대한 지적 이해는 박자나 형식 등 음악적 이해에 관한 지식이 포함된다. 악보, 악전을 비롯해서 화성법, 대위법, 형식 등 음악의 표현 요소에 대한 지적인 이해 요소나 음악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음악미학, 음악사, 음악가 등에 관한 지식 모두가 포함 된다. 이러한 음악에 대한 지적인 이해는 감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음악적 이해가 선행 될 때 감상에 있어서 본질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sup>6)</sup>



감상교육은 음악을 바르고 즐겁게 음미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서는 음악을 통해 아름다움을 지각하여 음악이 우리들의 생활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터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음악을 이해 할 수 있는 인간정신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학생들에게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상 지도에 있어서 음악의 기술보다는 음악에 대해 마음으로부터의 정열을 지닌 애호자라는 편이 오히려 적합하다. 감상은 마음의 상상의 문제이기에 기술은 그것의 보조적인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겠다.

음악 감상의 이해란 모든 지식을 포함한 감정에 의해 이루어진다.<sup>7)</sup> 다시 말하면 인간성의 토대에서 행해지며 진행되는 것이다. 그것은 지식만도 아니고 기술만도 아니며 모든 것을 함께 모아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예술적인 분위기가 빈약한 음악 감상 교육은 아무리 교묘하게 한다고 해도 효과는 적을 것이다. 교사가 예술 감상의 우수한 체험자이고 예술에 대해 열성적인 정열을 가지고 있다면 설혹 교육방법이 충분하지 못한다 해도 학생들로 하여금 음악 미에 대해 식별을 눈뜨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음악은 수많은 소리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게 인간에게 전달된다.<sup>8)</sup> 그래서 작곡가들은 소리로써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고, 연주자들은 그 곳을 목소리 또는 악기로 자신을 최대한 표현한다. 그리고 감상자는 들려오는 소리를 통해 작곡가와 연주자의 시계를 자신의 사상과 감정으로 받아들이며 비로소 하나의 음악이 완성되어진다. 음악의 완성과정은 창작, 연주, 감상 순으로 진행되지만 음악 교육의 완성과정은 그와는 반대로 거꾸로 진행되어진다. 어린이가 태어나서 반복되는 수많은 말들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점차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 가듯이 음악도 많이 들어야 개인의 창의력과 음악성을 통해 창작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

음악 감상을 심미적으로까지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고려된다.<sup>9)</sup>

첫째, 음악 감상에 사용되는 음악은 예술적 가치가 있는 훌륭한 음악이어야 한다. 즉 표현력이 풍부한 음악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훌륭한 음악이란 음악 작품이 만들어진 후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그 가치와 아름다움이 퇴색되지 않고 찬란한 빛을 발하는 예술적인 명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

6) 곽호진, (7차 교육과정의 의한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비교 분석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5) 13쪽

7) 이동수, 음악감상 심리에 관한 고찰 (제주대학교 학술집, 1982) 221쪽

8) 채현경, 최재천 옮김(Jourdain, Robert ),(음악은 왜 우리를 사로잡는가, 2002) 29쪽

9) 신도용, 음악 교육 철학, (세광음악출판사,1987) 52쪽

생들이 흔히 접하고 좋아하는 생명력이 짧은 대중음악과는 매우 상이한 가치를 갖는다.

둘째, 음악의 표현력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을수록 음악 감상에서 보다 많은 심미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감상자는 음악을 들으면서 그 안에 내재된 심미적 가치에 반응하게 되는데 음악을 듣는 기회가 많아질수록 심미적 가치에 반응하게 되는데 음악을 듣는 기회가 많아질수록 심미적 가치에 더 잘, 더 많이 반응하게 되며, 이것이 곧 깊이 있는 경험이 되는 것이다. 음악 감상에서 중요한 것은 음악을 듣고 그 음악이 좋은가 혹은 싫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악에서 얼마나 많은 음악적 표현 요소를 감지하고 반응했는가 하는 것이다.

셋째, 음악 감상이 좀 더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음악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점점 더 민감해질 필요가 있는데, 선율, 화성, 리듬, 음색, 구조 형식 등의 표현요소가 그것이다. 음악이 가진 표현요소는 설명이 가능하므로 학생들로 하여금 음악 어법에 익숙하도록 하는 것이 음악과 교사들의 과제이며 이를 통해 감상에서 더욱 풍부한 경험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음악 감상학습이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감상 활동과는 다르다.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감상 활동이란 음악교육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며 어느 영역의 어떠한 활동이든 감상이 아닌 것이 없을 만큼 음악 감상은 그 영역이 넓고 가치가 크다.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감상 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더 아름답고 고차원적인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부여함에 의미가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음악을 알고 느낄 수 있는 학생들 나름의 능력이 서서히 마련될 수 있도록 연령과 학년에 따라 감상 교육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 (3) 심미적 관점에서의 음악감상

음악을 감상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정관적 감상과 심미적 감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10)</sup> 그 중에 본 논문은 제 6차 교육과정 때부터 대두되고 있는 ‘심미적 음악교육’에 맞춰 심미적 관점에서의 음악 감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심미적 감상은 동적·주관적·낭만적으로 맛보고 만족하는 태도로서 ‘디오니소스적(Dionysisch) 감정형’이라고 한다.<sup>11)</sup> 음악을 감상할 때 감상자마다

10)이홍수(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1990)에 의하면, 미학적 관점에서 심미적 음악교육이론은 관련 주위, 형식주의, 표현주의로 나누어진다.

의 음악을 받아드리는 느낌은 다르다. 특히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감상할 때는 감정적 태도의 변화가 심하여 작품의 자극에 쉽게 이끌려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은 ‘작품’의 감상이라 말하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심미적 음악 감상은, 음향의 감동과 음악적 사고, 음악적 시상의 구축, 음악의 미적 및 예술적 통찰의 순간은 연속적인 과정을 통하여 의미를 향수하고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음악과 교육은 심미적 체험과 음악적 능력의 향상 및 심성의 계발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교과 지도 내용은 여기서 출발된다. 음악 교과의 본질인 음악의 심미적 체험은 음악의 감동과 음악적 사고, 음악적 심상의 구축, 음악미적 및 예술적 통찰의 순간 - 연속적 과정을 통하여 음악의 총체적 표현성, 즉 음악의 아름다움과 예술적 의미를 향수하고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 심미적 음악의 체험을 위해서는, 심미적 체험을 발생시킬 만한 요건을 많이 갖춘 악곡을 선정해야 하며, 음악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음악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학생들은 모든 음악 체험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표현하고 향수하는 데에 중점을 두도록 이끌어져야 한다. 음악적 능력은 다양한 종류의 악곡과 활동의 체험을 통해서만 습득되어 향상되어야 한다. 음악적 감수성과 음악적 개념에 대한 이해력, 음악활동에 유용한 음악 행위기능, 창의적인 음악 표현력, 음악적 통찰력 등은 음악의 심미적 체험에 긴요한 능력들이다. 이것은 학교의 음악 학습을 통해 의도적으로 습득되고 향상 될 수 있도록 지향해야 할 부분이다.

음악적 심성은 음악에 대한 인식, 기호, 가치화 등과 관련된 마음의 상태와 태도를 뜻한다. 교사는 항상 학생들로 하여금 음 현상과 음악 생성의 원리에 주목하도록 수업한다. 그 결과 학생들의 음악 지각 예민성과 반응력이 향상되고, 그것을 통하여 음악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능력이 향상되어 학생 개개인의 음악적 심성이 계발될 때, 음악적 개념의 이해를 도울 수 있게 되며, 음악 행위에 의미를 제공하는 음악적 심상을 제공함으로써 음악경험의 질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음악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며 삶의 내용은 풍부해지고 그 질은 높아지며, 음악과 관련된 가치 체제가 인격화됨으로 마침내 전인격적 성숙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음악적 정서와 음악에 대한 애호심, 그리고 가치의 내면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음악적 정서는 음악적 느낌과 음악적 감정을 바탕으로 한다. 음악적 느낌과 음악적 감정은 음악을 체험하여 생기는 일시적인 내면

---

11) 유재봉, (심미적 음악감상을 통한 창의적 표현능력 신장 지도방안연구) 8쪽

상태를 말하고, 음악적 정서란 오랜 기간의 음악적 체험을 통해 형성된 지속적인 내면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음악 애호심은 음악을 좋아하는 정도나 음악의 종류와 관련하여 좋아하는 정도를 말한다. 가치의 내면화란 음악의 본질을 이해하고, 개인적 및 사회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를 인식함으로써 음악에 대한 가치체계를 확립하고 그에 따라 일관성 있게 행동할 만큼 인격화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sup>12)</sup>

음악을 좋아하는 마음은 음악 체험의 질과 범위와 방법에 따라 결정되며, 음악활동과 관련된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러웠던 경험은 음악 애호심을 부추긴다. 만약 교사가 음악 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이 만족을 느낄 만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악을 하도록 격려한다면, 학생들은 음악에 대하여 분명히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음악교과는 음악의 심미적 체험과 능력의 향상 및 심성의 계발을 가능하게 할 만한 타당하고 체계적인 교육 내용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음악과 학습 목표와 원리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수업을 계획해야 하며 교과 내용의 틀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

음악체험의 틀로서는 다양한 악곡 체험, 다양한 음악 활동 체험, 심미적 체험(음향의 감득 및 판별-음악적 사고-음악적 심상의 구축-음악미적 및 예술적 통찰과 예술적 행위)를 들 수 있고, 음악적 능력 습득 및 향상의 틀로서는 음악적 재 현상 감득 및 반응 능력 향상(탐구와 사고를 통한 음악적 개념 이해), 음악활동에 유용한 기본 기능 향상(음악적 기능), 창의적인 음악 표현력 향상(창의적 표현), 악곡의 아름다움과 예술적 심성 계발의 틀로서는 음악을 통해 자기를 표현하고, 음악의 아름다움과 예술적 의미를 수용하려는 마음계발(음악적 정서), 음악을 애호하는 마음, 음악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려는 마음 계발(음악 애호심), 음악의 개인적 사회적 가치와 예술적, 효용적 가치를 존중하는 마음 계발(음악의 가치화) 등을 들 수 있다.<sup>13)</sup>

심미적 관점에서의 음악 교과의 지도방법은 그 교과의 내용 체계와 교과 특유의 학습 방식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음악 학습 지도 방법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음악과의 학문적 내용체계와 성장 발달에 따른 내용 체계를 파악해야 하고, 학생들에게 음악적인 배움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고찰해야 한다.

12) 이흥수,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세광음악출판사, 1992) 43쪽

13) 이민향, (심미적 음악교육의 관점에서 본 초등학교 음악수업 실태 분석) (대전 :한국 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19쪽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음악의 추상적인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 먼저 마음 속에 그것을 성취해 갈 과정을 계획해야 하며, 추상적인 개념을 형성하게 하기 위해 어떤 자극을 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학습자가 추론적 사고를 통해 음악의 개념을 형성하는 동시에 비 추론적인 개념을 형성하게 하기 위해 어떤 자극을 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학습자가 추론적 사고를 통해 음악의 개념을 형성하는 동시에 비 추론적인 인식의 과정을 통해 음악 작품의 아름다움과 예술적 의미를 인식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 지도된 것은 학생들의 생활 행동과 연결된 것으로 현실감이 있어야 하며, 적절한 단계적, 수반적 학습을 촉구하는 것이어야 하고, 기본적인 학습을 헛되지 않게 잘 실시하는 등 효과적인 지도법에 의해서 지도되어야 한다.<sup>14)</sup>

또한 교사는 감상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내면이 음악의 아름다움과 예술적 의미와의 예술적인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학생들의 음악의 이해와 통찰 등이 음악 작품의 미적·예술적 음향 지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음향을 음악 예술적으로 지각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것이 감상의 한 부분인 음향 예술의 체험의 시초로서 중요하다. 학생들은 음악을 경험할 때마다 음악에 관한 개념을 형성하며, 음악을 더 많이 경험 할수록 음악에 관한 개념을 더 확대 개발하기 때문에, 학교는 모든 학년에 걸쳐 폭 넓고 다양한 음악 체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2.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

### (1) 음악과 교육과정의 변천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음악교과과정은 1955년 제 1차 교육과정이 제정, 공포된 이래 거듭된 개편을 거쳐 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와 발전을 해 오고 있다. 각각의 교육과정은 약 4년에서 11년 정도 위 기간을 주기로 개정되어 왔으며 개정 때 마다 당시에 주류를 이루었던 일반 교육 이론과 음악 교육이론 및 방법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sup>15)</sup> 제 1차에서 제6차에 이르는 동안 음악과의 목표는 점차 구체화되고 실질적인 것으로 변모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제1차 교육과정(1955년)은 다른 교육과정과는 달리 각 항목이 모두 목표

14) 한국 음악교재 연구회 역(James L.Mursell 지음), 음악교육과 인간형성, (세광음악출판사 1987),120-127쪽

15) 교육부, 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 1996) 39쪽

로 제시되어 있는데 음악과 목표의 특징은 일반 목표에 따라 가창과 기악, 감상, 창작 및 음악의 기초이론 등 다섯 영역으로 진술되어 있으며 특히 음악에 관한 지식, 기능, 태도 및 습관 등의 지도를 강조하고 있다. 지도 내용에 있어서는 당시의 선진 국가들이 수행하고 있던 학교 음악의 내용과 방법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와 서양 여러 나라의 음악가들이 만든 악곡과 이론을 배우고 그 방법을 익혀서 음악을 생활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차 교육과정(1963년)은 교육과정의 개념상 생활 중심 교육과정 또는 경험중심 교육과정으로 부른다. 따라서 음악교육은 음악적인 감각을 바탕으로 한 실제적인 표현과 감상에 중점을 두고 음정, 화음, 독보, 청음력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음악적인 감각이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학습을 영위하도록 하였으며, 초보적인 기능과 태도에 관련된 목표를 제시하였다.

제3차 교육과정(1974년)에서 음악과 교육과정은 국민적 교양, 기초적 능력, 표현 및 감상능력, 민족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 및 태도 등 네 개의 일반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음악적 감각과 기본 기능, 가창 표현력, 창의적 표현력, 감상 능력 및 태도 등 다섯 항의 학년별 목표를 제시하여 네 가지 활동 영역별로 범주와 활동 내용을 밝히고 있다.

제4차 교육과정(1981년)에서 음악과 교육과정은 바람직한 음악 체험, 음악성, 정서, 창조성, 조화로운 인격이 그 목표로 설정되고, 음악적 감각의 향상, 독보능력 및 창조적인 표현능력의 배양, 참여태도, 음악 문화적 배경의 이해 음악, 애호심 양양 등에 중점을 두었다.

제5차 교육과정(1987년)은 제 4차의 구성 체제를 거의 동일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내용의 구성 면에서 제 4차 보다 간결하게 조종, 제시되고 있다. 제 5차 음악과 교육과정은 제 4차와 비교할 때 본질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목표와 내용 구성상의 변화만 있다.

제6차 교육과정(1992년)에서 음악과의 교육 과정 개정에 대한 기본 입장은 창조적 인간육성, 전통 음악 학습과 표현 중심의 학습 강조, 감상을 통한 음악적 정서 순환과 생활의 강조, 음악성 계발 등을 학습내용으로 삼아 음악의 기초적인 구성요소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표현력 육성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제 6차 음악과 교육과정은 이전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했던 표현과 감상 두 영역에 비해 그 내용을 크게 이해, 표현, 감상의 3개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가운데서 표현은 다시 가창, 기악, 창작의 3개 소 영역으로 구분하였다.<sup>16)</sup>고등학교 음악과는 초, 중학교에서 학습한 음악 교육을 바탕으로 가창,

기악, 창작 등의 학습을 통하여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 기능을 높여 주며, 다양한 음악을 감상하게 하여 풍부한 감수성과 음악에 대한 올바른 가치 판단 능력을 기르게 하는 데 있다. 내용은 음악의 구성 요소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와 가창, 기악, 창작 등의 학습을 통한 그리고 감상으로 구성된다. 교수, 학습 과정에서는 다양한 음악의 체험을 통한 원만한 품성 함양과 음악의 생활화가 이루어지게 하며, 특히 전통음악을 폭넓게 이해하고 그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여 이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도 함양에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해, 표현, 감상 등의 학습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음악의 체험을 통한 창의적인 표현 활동과 감상 활동이 폭넓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감상영역에서는 전통음악에 대한 감상 학습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우리 전통음악의 폭넓은 이해와 그 가치의 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즉음악 및 현대음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시대의 음악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음악의 생활화를 위해 음악회 청중으로서의 바른 태도를 다루고 있다.<sup>17)</sup> 또한 평가에 있어서는 각 영역별로 편중됨이 없이 고루 평가하도록 하며, 10개항의 전 영역에 걸친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감상영역의 평가는 이론적인 지식보다는 실제 음악감상을 통하여 흥미, 태도, 가치관, 정의적이고 심미적인 음악적 반응, 음악의 생활화 정도, 음악적인 감각 등을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 (2)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분석

### 1)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변화되는 새 시대를 이끌어가고 인재를 육성해야 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과 기능이라면 음악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에 따른 운영을 제시하고 있는 음악과 교육과정도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여 바뀔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6차 교육과정 보다 좀 더 시대적 요청, 세계적 추세, 교육적 요구와 그 맥락을 같이하여 새 시대를 위한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였다.

7차 교육과정의 개정 중점은 모든 학생들이 1학년부터 10학년 까지 음악 수업을 받게 되며, 11학년과 12학년은 학생들은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 음악 과목을 선택하게 된다.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인 10개 학년을 하나로 묶어 일관성 있고 포괄적이고 ,연계성을 가지도록

16) 교육부 (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해설) 서울 ; 대한교과서, 1996 39p

17) 광호진 (제 7차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비교 분석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21쪽

구성되었다. 또한 21세기의 정보화, 세계화, 다양화시대 속에서 우리의 음악 문화뿐 만 아니라 다양한 시대와 양식,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접하여 우리의 음악 문화유산과 다른 나라의 음악 문화유산을 비교하고, 각 음악문화의 문화적 특징과 그 역사적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정서를 함양하는데 기여하도록 하였다. 18)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음악을 듣고, 노래 부르고, 악기로 연주하며, 음악을 만드는 등의 ‘음악하기’ 중심의 교육이 되도록 중점을 두었고, 음악 개념이나 기능은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습득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여러 종류의 감상곡들을 시대별, 작곡가별, 등으로 실어 이러한 교육에 밑바탕이 되도록 하고 있다.

## 2) 음악교과서의 성격과 내용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은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에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기본 취지에 제 7차 교육과정은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 기본 교육의 충실, 세계화, 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능력의 신장,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의 실천, 지역 및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은 크게 1)음악과 2)음악과 생활의 두 부분으로 구별된다. 2)의 음악과 생활은 음악에 흥미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으로서 제 7차 교육과정의 선택적 특성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음악과 생활은 음악에 흥미를 가진 학생들의 음악적 능력과 관심분야를 넓히기 위한 것이다.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내용은 크게 이해와 활동 영역으로 구별된다. 이해영역은 리듬, 가락, 화성, 형식, 셈여림, 빠르기, 음색의 개념들로 구분되어 제시된다. 이것은 제 6차 교육과정에서는 리듬, 가락, 화음, 형식, 셈여림, 빠르기, 음색으로 나누어진 개념들 중 화음을 화성으로 대치하여 제시한 것이다. 화음을 화성으로 대치한 것은 화성이라는 용어가 화음이라는 용어보다 더 포괄적이고 서양음악의 기능화성적 측면을 더 적절하게 제시하기 때문일 것이다. 활동 영역은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4가지 영역으로 재 구분된다. 가창은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활동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일제시대부터 강조되어 온 영역이다. 제7차 교육과정은 독창 활동 뿐 아니라 제창, 중창, 합창 등의 다양한 기악 영역을 제시한다. 기악영역은 가창보다 풍

---

18) 제 7차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



부한 음악적 표현력을 제공 할 수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은 독주활동뿐 아니라 중주, 합주 등의 다양한 기악 영역을 제시한다. 기악 영역의 활동들은 가창 영역과 공통점을 갖는다. 단 가창영역의 ‘악곡을 듣고 따라 부른다’에 해당하는 활동에 상응하는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악영역에 따라 연주하기가 가창 영역에 따라 부르기보다 난이도가 높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대신, 기악 영역에는 화음 반주를 비롯한 다양한 반주 활동이 첨가되어 있다. 창작은 학생들이 학습한 음악적 개념과 내용들을 독창적으로 다루는 활동이다.

감상영역은 주로 분석적 감상 (구성요소, 형식, 음색, 연주형태, 장르) 신체 표현, 다문화적 감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감상의 영역에 분석적 감상과 다문화적 감상이 포함된 것은 세계적 추세와 포괄적 음악성의 정신에도 적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3) 제 7차 고등학교 음악교육과 감상영역

음악 감상활동의 교육적 성취를 위하여 고등학교에서는 다양한 시대·문화의 음악을 통해 음악적 창의성을 기르는 감상 활동의 목표를 세우고 그 실천을 위하여 감상 영역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1) 음악의 구성 요소를 이해한다.
- 2) 가창, 기악, 창작, 감상 활동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른다.
- 3)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여 음악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기른다.<sup>19)</sup>

모든 학생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10학년)까지는 필수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11-12학년 까지는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음악과 생활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고등학교 음악의 활동 영역 중 감상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악곡의 성격과 구성요소와의 관계를 이해하여 듣는다.
- 2)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형식을 이해하여 듣는다.
- 3)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에 어울리게 창의적으로 신체표현을 한다.
- 4) 다양한 악기 소리와 목소리의 조화를 이해하여 듣는다.(민속악기)
- 5) 다양한 악곡의 연주 형태와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의 관계를 이해하여 듣는다.

(양상블)

---

19) 제 7차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 (별책12), 29쪽

6) 잡가, 창극, 뮤지컬, 다성음악 등 성악곡과 실내악곡, 무용곡, 창작 국악곡 등의 기악곡을 듣는다.

7)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듣는다.

8) 생활에서의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한다. (음악과 민족, 여러 양식의 음악)

9) 음악을 듣고 평한다.

10) 바른 감상 태도를 가진다.

음악 수업에 있어서 감상 영역은 학생들이 특별한 음악적 시술이 없어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역이며, 모든 음악활동의 기초가 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감상교육에 대한 음악과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인 10개 학년을 하나로 묶어 일관성 있고, 포괄적이며, 연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다 심화된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 **(3) 심미적 관점에서의 7차 개정 교육과정 감상영역 개선방향**

고등학교 음악교육 개정안에 따른 감상영역의 내용을 보면, 다양한 형식 및 양식의 악곡과 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음악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악곡의 내용과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파악하면서 감상하게 한다. 또 공연음악 듣기와 매체 음악 감상 부분을 첨가 했는데 이것은 공연장이나 축제 현장을 찾아가서 음악을 듣거나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듣고 또 여러 매체를 통해 음악을 감상하게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 개정안 내용은 심미적 경험을 통하여 생활의 질을 높이는 의도를 지녔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음악교육의 현실은 개정 보완되었음에도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심미적 음악교육을 시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심미적 경험을 바탕으로 음악의 심미적 가치를 지각하고 반응하여 학생 스스로 음악의 이해력, 음악적 행위, 창의적인 음악적 표현력, 음악적 통찰력을 기르게 하여 음악에 대한 애호심과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 Ⅲ . 고등학교 8종 교과서 감상영역 분석

현행 고등학교 8종 음악교과서는 감상곡을 서양 음악사의 흐름과 배경에 초점을 맞추어 수록하였다.

8종 교과서 구성에 따른 감상영역 분석방법으로, 시대별 작곡자와 작품을 어떻게 제시했는지 살펴보고 각 교과서 별로 장, 단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감상과정을 통해 각 교과서는 감상곡을 소개할 때에 시대와 장르를 통합하여 소개하거나, 각 단원별 소재목을 붙여 소개하고 있고, 시대별 분류와 작곡가들의 수록 등을 각기 조금씩 다르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른 감상곡의 수록 내용을 교과서 별로 정리하여 다루고자 한다.

먼저 각 교과서의 감상곡을 수록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교과서 구성에 따른 감상영역 분석

##### 1) 교학사

음악장르나 시대의 구분 없이 감상곡의 내용을 싣고 있으며 각 시대별로 대표적인 작곡가들의 사진을 제시하여 그들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교학사는 작곡가의 대표적인 감상곡이나 참고 곡을 소개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시각, 청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마지막 부분에 제시된 ‘확인학습’으로 배운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상곡에 각각의 작품마다 감상 요점을 제시하였고 음악사와 감상곡을 바로 연계하여 구성함으로써 통합적인 수업을 하는데 효과를 높였다.

교학사에 실린 감상곡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교학사 감상곡

번호	분류	곡목	작곡자
1	협주곡	기타를 위한 아라페즈 협주곡	로드리고
2		바르샤바의 생존자	쾨베르크

3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	모차르트
4		가극 ‘탄호이저’ 서곡 및 행진곡	바그너
5	실내악곡	현악 4중주곡 ‘종달새’	하이든
6	미사곡	레퀴엠	모차르트
7	뮤지컬	‘캣츠’	웨버
8	극음악	‘한여름밤의 꿈’	멘델스존
9	관현악곡	서곡 ‘1812’	차이코프스키
10	다성음악	‘푸가’ 사단조	바흐
11	교향시	‘전주곡’	리스트
12		‘핀란드어’	시벨리우스
13	교향곡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드뷔시
14		제 5번 다단조 ‘운명; 작품 67’	베토벤

## 2) 대한교과서 (주)

대한교과서는 각 시대별로 좌측면에 서양 음악사와 우측면에 서양 음악 감상으로 나누어 이해영역을 학습한 뒤 곧바로 감상 영역을 연계하여 학습 할 수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대한교과서에 실린 감상곡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3>와 같다.

<표 3> 대한교과서(주)의 감상곡

번호	서양 음악사	서양 음악 감상 곡목	작곡자
1	바로크 이전과 바로크 시대	마르체리 미사	팔레스트리나
2		캐논 D장조	파헬렐
3		합창곡 ‘글로리아’	비발디
4		관현악 모음곡 제 3분의 제 2곡 ‘에어’	바흐
5		성악곡(아리아) ‘라르고’	헨델
6	고전파 시대	실내악곡 현악 4중주곡 ‘종달새’	하이든
7		교향곡 제 40번 사단조 K550	모차르트
8		피아노 3중주 ‘대공’	베토벤
9		정력들의 춤	글루크
10	전기 낭만파시대	예술가곡 연가곡집 ‘겨울 나그네’	슈베르트
11		독주곡 폴로네이즈 ‘군대’	쇼팽
12		어린이 정경	슈만
13		대학축전서곡	브람스
14	후기 낭만파 시대	교향시 ‘전주곡’	리스트
15	오페라 ‘카르멘’	비제	
16	환상 교향곡	베를리오즈	
17	국민 악파 시대	관현악곡 모음곡 ‘전람회의 그림’	무소르그스키
18		관현악곡 모음곡 ‘페르퀀트’	그리그
19		핀란드아	시벨리우스
20	근대·현대	관현악곡 모음곡 ‘어린이의 세계’	드뷔시
21		관현악곡 모음곡 ‘혹성’	홀스트

### 3) (주)두산

두산의 교과서는 전체적인 구성이 크게 두 개의 단원으로 나누져 있는데, I부는 통학 학습을 위한 단원이고, II부는 영역별 활동을 위한 단원이다. 감상에 대한 부분은 II부에 ‘서양 음악의 이해 (감상 및 음악사)’라는 제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두산은 각 시대에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감상곡에 대한 내용이나 작곡가들

은 진한 글씨로 강조하여 눈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감상의 마지막 부분에는 학습 평가로 감상 메모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감상곡을 듣고 본인의 느낌과 비평을 작성해 보도록 하여 음악적인 감각과 표현력을 길러 주고자 하였다.

두산에 실린 감상곡을 나타내면, <표 4>와 같다.

**<표 4> 두산 교과서의 감상곡**

번호	분류	곡 목	작곡자
1	교향곡	제 25번	모차르트
2		사계 중 '가을'	비발디
3		왕궁의 불꽃놀이	헨델
4		전원	베도벤
5		전람회의 그림	무소르그스키
6		제 40번	모차르트
7		봄의 제전	스트라빈스키
8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드뷔시
9	협주곡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제5번	바흐
10		첼로 협주곡 나단조	드보르작
11		첼로 협주곡 나단조	드보르작
12	합주곡	'종달새'	하이든
13		피아노 5중주 바단조	브람스
14	오페라	'아이다'	베르디
15		'카르멘'	비제
16	칸타타	카르미나 부라나	오르프
17	교향시	전주곡	리스트
18	미사곡	마르첼루스 미사	팔레스트리나
19	독주곡	토카타와 푸가	바흐
20		G선상의 아리아	바흐
21		랩소디 인 블루	거쉬인

#### 4) (주) 박영사

박영사에서는 다른 교과서에 비해 서양음악사의 비중을 크게 다루었다. 그리고 사진을 많이 수록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내용적으로 핵심이 되는 부분에는 색에 변화를 주어 시각적인 효과에도 초점을 두었다.

이 교과서의 구성은 음악사, 감상하기, 음악 길잡이, 정리하기, 음악 산책으로 되어 있다. 또 한 각 시대의 배경과 음악적인 특징 및 형식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시대의 특징적인 작품을 감상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감상 부분에서는 각 시대의 대표적인 작품을 소개하며 감상곡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악보를 제시하였다. 박영사에서는 시대의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시대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을 발췌하여 수식한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다른 교과서는 대부분 시대의 이름을 바로크 음악, 고전과 음악, 낭만과 음악 등 가장 보편적인 명칭으로 서술하지만 박영사는 시대의 명칭을 바로크 음악과 오페라의 탄생, 고전과 음악과 소나타 형식, 자유의 향기 - 낭만과 음악과 같이 각 시대에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을 함께 제시하였다는 것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박영사에 실린 감상곡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5>과 같다.

<표 5> 박영사의 감상곡

번호	시대 또는 감상목적	곡 목	작곡자
1	르네상스 음악	아베마리아	조스캥데프레
2		마르첼리 미사	팔레스트리나
3		캐논 D 장조	파헬렐
4	바로크음악과 오페라의 탄생	레시타티브	헨델
5		사단조 푸가	바흐
6		왕궁의 불꽃놀이	헨델
7		오라토리오 ‘메시아’	헨델
8	고전파음악과 소나타 형식	피아노소나타 ‘열정’	베토벤
9		교향곡 제 40번	모차르트
10	자유의 향기 -낭만파 음악	마탄의 사수	베서
11		즉흥환상곡	쇼팽
12		교향시 전주곡	리스트
13		로엔그린 전주곡	바그너
14		축배의 노래	베르디
15		오페라 ‘일트로바토레’ 중 대장간의 합창	베르디
16		오페라 ‘파우스트’ 중 병사들의 합창	구노
17	또 하나의 낭만 -국민악파	나의 조국 중 ‘몰다우’	스메타나
18		전람회의 그림	무소르그스키
19		핀란드아	시벨리우스
20		관현악 모음곡 ‘페르퀼트’ 제 1곡, 제2곡	그리그



번호	시대 또는 감상목적	곡 목	작곡자
21	근대, 현대의 음악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드뷔시
22		볼레로	라벨
23		고전 교향곡 중 볼레로	프로코피에프
24		관현악을 위한 변주곡	쾨베르크
25		랩소디 인 블루	거쉬인
26	음악치료	교향곡 ‘놀람’	하이든
27		오페라 ‘빌헬름’ 서곡	로시니
28		피터와 이리	프로코피에프
29		사계	비발디
30		수상음악	헨델
31		골든베르크 변주곡	바흐
32		피아노 곡 ‘엘리제를 위하여’	베토벤
33		왈츠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요한슈트라우스
34		무곡 ‘볼레로’	라벨

### 5) 세광음악출판사

세광출판사는 감상 제재곡을 46곡으로 가장 많이 제시하고 가장 다양한 작곡자의 작품을 수록한 교과서이다. 또한 각 시대의 음악사적 특징에 대해 먼저 서술 하고, 대표적인 작곡가의 작품을 감상하는 방식으로 전개하였으며 각 시대마다 하나의 학습목표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지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세광음악 출판사는 다른 교과서에 비해 편집에 있어서도 음악사와 감상곡 명도를 달리하여 시각적인 포인트를 주었다.

세광출판사에 실린 감상곡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6>와 같다.

<표 6> 세광음악출판사의 감상곡

번호	곡 목		작곡가
1	계절 주제의 음악	바이올린 소나타 ‘봄’	베토벤
2		사계 중 ‘여름’	비발디
3		바다로 가자	이탈리아 민요
4		사계 중 ‘가을’	비발디
5		사계 중 ‘겨울’	비발디
6	토카타와 푸가 라단조		바흐
7	여러나라 춤곡	마주르카	쇼팽
8		볼레로	라벨
9		미뉴에트	베토벤
10		왈츠	브람스
11	탱고		.
12	세계의 민요		.
13	피아노 5중주 ‘송어’		슈베르트
14	론도 카프리치오소 와 무도회의 권유		멘델스존, 베버
15	나단조의 작품	발레음악 ‘백조의 호수’ 정경	차이코프스키
16		서곡 ‘핑갈의 동굴’	멘델스존
17		첼로 협주곡 나단조	드보르작
18		교향곡 ‘비창’	차이코프스키
19	랩소디 인 블루		거쉬인
20	뮤지컬	캣츠	웨버
21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번스타인
22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베르디
23	교향시 ‘중앙 아시아의 초원에서’		보르딘
24	카르미나 브라나		오르프

## 6) (주) 천재교육

천재교육에서는 음악사의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있게 각 시대마다 그림을 함께 첨부하여 설명하였다. 그래서 다른 교과서에 비해 유난히 그림이 많이 수록되었으나 감상 제재곡을 9곡 제시하여 고등학교 8종 교과서 중에 가장 적게 제시하였고 작곡자의 작품도 가장 적게 수록하였다. 천재교육에서는 많은 내용을 전달하기 보다는 그림을 통해 시각적으로 이해시키고자 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감상 여행에서는 거장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각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

를 소개하고 있으며, 다른 교과서에 비해 연도 표시를 가장 구체적으로 하였고, 작곡가의 영문 이름표기와 생애 연대까지 자세히 표시하였다.

천재교육에 실린 감상곡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7>와 같다.

<표 7> (주) 천재교육의 감상곡

번호	곡 목	작곡자
1	마르첼리 미사	팔레스트리나 (1525~1594)
2	피아노 협주곡 제 5번 ‘황제’	베토벤 (1770~1827)
3	피아노 5중주 ‘승어’	슈베르트 (1797~1828)
4	백조의 호수	차이코프스키 (1840~1893)
5	오페라 ‘사드코’	림스키코르샤코프 (1884~1908)
6	관현악 모음곡 ‘페르퀀트’	그리그(1843~1907)
7	세계의 민요와 민속 악기	.
8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웨버
9	영화 ‘시스터 액트 I	.
10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드뷔시(1862~1918)
11	프로메테우스여 오라	강석희

### 7) 도서출판 태성

태성 교과서는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배경을 추측할 수 있는 그림을 수록하였으며 대표적인 작곡가를 사진과 함께 소개하였다. 또한 관련 감상곡을 제시하여 작품의 제목과 교과서 쪽수를 기록해 감상과 연계하여 학습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감상곡에서 작곡가를 소개할 때 생애에 대하여 아주 자세히 다루었고, 다른 교과서에 비하여 각 시대마다 그다지 유명하지 않아서 잘 알지 못했던 작곡가를 까지 소개하여 다른 교과서에 비해 비교적 많은 작곡가들을 수록하였다. 또한 태성 교과서는 각 시대에 해당하는 감상곡의 악보를 다른 교과서에 비해 보다 많은 부분을 수록하여 더 집중하여 감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태성에 실린 감상곡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8>와 같다.

<표 8> 도서출판 태성의 감상곡

번호	곡 목	작곡자
1	마르첼로 미사	팔레스트리나
2	세속음악 무장인간	15세기
3	키리에	팔레스트리나
4	인벤션 다장조	바흐
5	현악 4중주 ‘황제’의 제 2악장	하이든
6	교향곡 제5번 ‘운명’의 제 4악장	베토벤
7	세 개의 단편 제 1곡	권 순호
8	기타놀이	허 영한
9	마주르카 제 4번	쇼팽
10	피아노 협주곡 제2번	라흐마니노프
11	클라리넷 5중주 나단조	브람스
12	일상적인 것들	이 만방
13	몰다우	스메타나
14	핀란드아	시벨리우스
15	한국 환상곡	안 익태
16	가사	윤 이상
17	창작 뮤지컬 ‘살짜기 읍서예’	.
18	창작 뮤지컬 ‘명성황후’	.
19	창작 뮤지컬 ‘도술가’	.
20	달에 홀린 빼어로	쾨베르크
21	볼레로	라벨
22	봄의 제전	스트라빈스키

## 8) 현대음악출판사

현대음악 출판사는 ‘문학과 음악’, ‘소리와 음악’, ‘겨레와 음악’, ‘세계와 음악’, ‘극과음악’, ‘의식과 종교음악’으로 분류하여 ‘감상’이라는 항목으로 시대와 장르를 통합해서 편성하였다. 또한 ‘역사속의 음악’이라는 항목으로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전개하여 각 시대마다 감상곡을 함께 연계하는 접근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류방법에 따라 ‘음악의 시작과 다성 음악’에서는 고대, 중세, 르네상스 음악을 제시하고, ‘기악 음악의 발전’에서는 바로크, 고전과 음악을 소개하며 대표적인 감상곡을 제시하였다. 음악의 낭만과 민족주의에서는 낭만파, 국민악과 음악을 소개하면서 각 시대의 특징과 4개의 감상곡과 작곡가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음악을 추구하며’에서는 근대와 현대 음악의 사조와 특징, 작곡가, 감상곡을 제시하며 설명하였다.

현대음악 출판사에 실린 ‘감상’과 ‘역사속의 음악’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9>, <표 10>와 같다.

<표 9> 현대음악출판사의 감상곡 (감상)

번호	시대와 장르	곡 목	작곡가
1	문학과 음악	세에라자데 Op.31	림스키 코르샤코프
2		교향시 전주곡	리스트
3	소리와 음악	관현악곡 ‘혹성’	홀스트
4		프로메테우스	강 석희
5	겨레와 음악	한국 환상곡	안 익태
6	세계와 음악	세계 여러나라의 민속음악	.
7		피아노 협주곡 ‘황하’	세 성해
8	극과 음악	오페라의 구성요소	.
9		오페라의 종류	.
10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로시니
11		오페라 ‘라보엠’	푸치니
12		관현악 모음곡 ‘페르퀀트’	그리그
13		의식과 종교음악	레퀴엠

<표 10> 현대음악출판사의 감상곡 (역사속의 음악)

번호	시대와 장르	곡 목	작곡자
1	음악의 시작과 다성음악	마르첼로 미사	팔레스트리나
2	기악음악의 발전	오라토리오 ‘메시아’	헨델
3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제5번	바흐
4		교향곡 제 40번	모차르트
5		피아노 트리오 ‘대공’	베토벤
6	음악의 낭만주의와 민족주의	첼로 소나타 ‘아르페지오네’	슈베르트
7		피아노 협주곡 가단조	슈만
8		바이올린 협주곡 라단조	차이코프스키
9		전람회의 그림	무소르그스키
10	새로운 음악을 추구하며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드뷔시
11		카르미나 브라나	오르프
12		봄의 제전	스트라빈스키

8종 교과서 감상곡을 분석해 본 결과 총 109곡의 서양 음악 감상곡이 수록되어 있다. 그중 8종 교과서 모두에 실려 있는 곡은 한 곡도 없었으며, 7종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수록된 곡도 역시 한 곡도 없었다. 6종 교과서에서 드뷔시의 교향시 ‘목신의 오후의 전주곡’, 팔레스트리나의 ‘교황 마르첼로의 미사’, 이상 2곡만이 공통으로 수록되었으며, 리스트의 교향시 ‘전주곡’, 그리그의 모음곡 ‘페르퀀트’ 2곡이 5종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수록되었다. 모차르트 교향곡 제 40번, 시벨리우스의 교향시 ‘핀란드야’,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 이상 4곡이 4종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수록되었으며, 바흐의 ‘푸가 사단조’, ‘브란덴 브루크 협주곡’ 제5번, 하이든의 현악 4중주 ‘중달새’, 베토벤의 교향곡 제 5번 ‘운명’,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오르프의 칸타타 ‘카르미나 브라나’, 거쉰의 피아노 협주곡 ‘랩소디 인 블루’를 포함하여 총 7곡이 3종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수록되었다. 바하의 ‘토카타와 푸가’를 포함하여 총 21곡이 2종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수록되었으며, 오르가눔 및

조스갱의 ‘아베마리아’를 포함하여 73곡이 단 1종의 교과서에만 수록되었다. 교과서별로 중복하여 수록된 곡들은 바로크나 고전시대의 곡보다는 낭만이나 근대 시대의 곡이 많이 선정되었다.

감상 제재곡을 가장 많이 제시한 교과서는 세광교과서로 46곡이 수록되었고, 가장 적게 제시된 교과서는 천재교육 교과서로 9곡 제시되었다.

8종 교과서에서는 총 54명의 서양 음악 작곡자의 작품이 수록되었으며, 8종의 교과서 모두에 작품이 수록된 작곡자는 베토벤 한 명이 유일하였다. 7종 교과서에서 작품이 수록된 작곡자는 드뷔시 한 명이며, 6종 교과서에 작품이 수록된 작곡자는 팔레스트리나, 바흐, 모차르트 이상 3명이다. 5종의 교과서에 작품이 수록된 작곡자는 헨델, 하이든, 슈베르트, 그리그 이상 5명이며, 4종 교과서에 작품이 수록된 작곡자는 쇼팽, 브람스, 차이코프스키, 무소르그스키, 시벨리우스, 쇤베르크, 스트라빈스키 이상 7명이다. 3종의 작품이 수록된 작곡자는 비발디를 포함하여 8명이며, 2종 교과서에 작품이 수록된 작곡자는 파헬벨을 포함하여 총 10명이며, 1종 교과서에만 작품이 수록된 작곡자는 19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나타내었다.

가장 다양한 작곡자의 작품을 수록한 교과서는 세광이며, 가장 적은 수위 작곡자의 작품을 수록한 교과서는 천재교육이다. 또한 세광음악 출판사, 천재교육, 도서출판 태성 교과서에서는 뮤지컬과 영화음악을 소개하고 있어 새로운 음악 교과서로서의 다양한 음악장르를 선보이고 있다.

## 2. 시대별

8종 교과서의 감상곡 수록방식이 다르듯이 감상곡의 시대별 분류도 각 교과서별로 시대의 구분을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다.

교학사는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음악을 넓게 하나의 시대로 보았고 그 안에 중세음악, 르네상스 음악, 바로크 음악을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고전과 시대의 음악, 전기 낭만과 시대의 음악, 후기 낭만과 시대의 음악, 국민악과 시대의 음악, 근대, 현대 음악까지 넓게 6개의 시대로 구분하였다.

대한 교과서는 바로크 이전과 바로크 시대를 하나의 범주에 두고 그 안에서 다시 중세 음악, 르네상스 음악, 바로크 음악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고전과 시대, 전기 낭만과 시대, 후기 낭만과 시대, 국민 악과 시대, 서양 근대, 현대로 시대를 구분하였다. 넓은 범주로 보면 6개의 시대 구분으로 교학사와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9시대 구분으로 된다.

두산 교과서는 ‘서양 음악의 역사’ 라는 제목 아래 중세음악, 르네상스 음악, 바로크 음악, 고전파 음악, 전기 낭만파 음악, 후기 낭만파 음악 국민악파 음악, 근대 음악, 현대 음악까지 비교적 많은 10개의 시기로 구분하였다.

박영사 교과서는 중세 음악의 변천, 르네상스 음악, 바로크 음악과 오페라의 탄생, 고전파 음악과 소나타 형식, 자유의 향기 - 낭만파 음악, 또 하나의 낭만 - 국민악파, 근대, 현대의 음악으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박영사는 독특한 시대 구분 방식을 사용하여 총 7개의 시대로 분류하였다.

세광 교과서는 교학사와 같은 방법으로 시대를 6개 시기로 구분 하였고 전체적으로 수록된 감상곡들은 비교적 고르게 편성되었다.

태성 교과서는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낭만, 20세기까지 총 6개의 시대로 분류하고 있다.

현대 교과서는 가장 독특한 시대 구분 방식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8종 교과서의 감상곡 수록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음악의 시작과 다성음악’, ‘기악 음악의 발전’, ‘음악의 낭만과 민족주의’, ‘새로운 음악을 추구하며’ 로 큰 주제로 4개의 시대로 구분되어 있고, 소제목으로 살펴보면 8개의 시대로 구분되어 있다.

이처럼 8종 교과서에서 각기 다르게 시대를 분류하고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시대별 구분을 이반적인 시대 구분에 의해 중세(500-1450), 르네상스(1450-1600), 바로크(1600-1750), 고전주의(1750-1825), 낭만주의 (1825-1900)로 분류하고, 민족주의와 근대 (드뷔시 이후 제 1차 세계대전까지), 현대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로 나타냈다.

이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11>와 같다.



<표 11> 서양음악의 시대별 분류

시대	곡수	교학사	대한	두산	박영사	세광	천재	태성	현대	합계
중세	곡수							1		1
	비율							7.1		0.6
르네상스	곡수		1	1	3	2	1	1	1	10
	비율		4.8	4.8	10	4.7	10	7.1	5	5.8
바로크	곡수	1	4	5	7	4		1	2	24
	비율	7.1	19	23.7	23.3	9.5		7.1	10	13.9
고전	곡수	4.	4	4	2	6	1	2	2	25
	비율	28.7	19	19	6.7	14.4	10	14.3	10	14.5
전기 낭만	곡수	1	4	2	2	10	1	1	2	23
	비율	7.1	19	9.6	6.7	23.9	10	7.1	10	13.4
후기 낭만	곡수	3	3	3	6	8	1	1	4	29
	비율	21.4	14.3	14.3	20	19	10	7.1	20	16.9
민족주의	곡수	1	3	2	4	5	2	2	3	22
	비율	7.1	14.3	9.6	13.3	11.9	14.3	14.3	15	12.8
근대	곡수	2	2	4	5	5	4	4	5	28
	비율	14.3	9.6	19	16.7	11.9	28.8	28.8	25	16.3
현대	곡수	2			1	2	1	1	1	10
	비율	14.3			3.3	4.7	7.1	7.1	5	5.8
합계	곡수	14	21	21	30	42	14	14	20	172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8종 교과서의 감상 제재곡은 중세 음악이 0.6%, 르네상스 음악은 5.8%, 바로크 음악은 13.9%, 고전은 14.5%, 전기 낭만은 13.4 %, 후기낭만은 16.9%, 민족주의는 12.8%, 근대는 16.3 %, 현대는

5.8%를 수록하고 있다. 8종 교과서 모두 제시된 시대는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전기낭만, 후기 낭만, 민족주의, 근대의 곡들이며 낭만시대의 곡이 52곡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각 교과서 별로 살펴보면 대한교과서와 두산은 현대의 곡이 전혀 수록되어 있지 않고 박영사는 다른 교과서에 비해 바로크 시대의 곡에 비중을 두었다. 세광은 전기 낭만 시대의 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태성에서는 다른 교과서에서 전혀 수록하지 않았던 중세의 곡을 다루고 있다. 교학사는 중세와 르네상스의 곡이 전혀 없으며 현대 출판사는 현대의 곡이 3곡이나 수록하여 현대음악에 큰 비중을 두었다.

분석 결과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음악감상 활동은 전체적으로 감상 곡목의 고른 분포로 학생들의 감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단, 각 출판사마다 감상곡 수의 편차는 고려할 수밖에 없지만 과도한 편성으로 오히려 깊이 있는 감상에 접근하지 못하는 우려가 있다. 또한 장르의 다양화와 곡목 편성에 주력하다보니 고등학교시기에 맞지 않는 감상곡도 일부 보였고 일부 선보인 현대음악에서는 일상에서 접근 할 수 없는 신선함을 제공한 시도는 좋으나 그 배경 설명이 언급되지 않아 감상의 이해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 3. 작곡자별

교학사 교과서에 수록된 감상곡의 작곡가는 중세 시대의 작곡가를 제외하고 총 11명의 작곡가를 소개하였다. 대한 교과서와 두산 교과서 역시 중세 시대의 작곡가는 제외되었으며, 박영사는 27명, 세광 교과서는 총 35명으로 가장 많은 감상곡의 작곡가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 교과서는 19명을 수록하였고 태성은 중세 시대의 작곡가를 포함하여 16명, 천재는 중세시대와 현대 시대의 작곡가들이 전혀 수록되어있지 않았고 작곡가의 소개는 10명으로 가장 적었다.

작곡가별 분류는 8종 교과서의 작곡가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분류하였으며 작곡가의 분류는 시대에 따라 하였다.

이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12>와 같다.

<표12> 감상곡의 작곡가별 분류

시대	작곡자	교 학 사	대 한	두 산	박 영 사	세 광	천 재	태 성	현 대	합 계
중세	작가미상							1		1
르네 상스	조스깡데프레					1				1
	팔레스트리나		1	1	1		1		1	5
	비발디		1	1	1	1				4
바로 크	바흐	1	1	3	1	2			1	10
	헨델		1	1	4	1	1		1	8
	파헬렐	1	1		1					2
고전	하이든	2	1	1		1				5
	모차르트	1	1	2	1	2	1		1	9
	베토벤		1	1	1	3			1	10
	글록		1				1	1		1
전기 낭만	베버			1	1	1				3
	슈베르트		1	1		2	1		1	6
	브람스		1	1		1		1		4
	멘델스존	1		1				4		5
	쇼팽		1		1	1		1		4
	슈만		1			1			1	3
후기 낭만	로시니								1	1
	바그너	1		1	2	1				5
	베르디				2	2				4
	리스트	1	1	1	1				1	4
	구노			1	1					1
	베를리오즈			1		1				2
	비제					1				3
	차이코프스키	1	1			2	1			5
	푸치니					1			1	2
	라흐마니노프								1	1

시대	작곡자	교 학 사	대 한	두 산	박 영 사	세 광	천 재	태 성	현 대	합계
민족 주의	스메타나							1		2
	브로딘				1	1		1		1
	무소르그스키			1					1	4
	드보르작				1	2				3
	그리그					2			1	5
	림스키코르사코프			1	1		1		1	3
	시벨리우스	1	1	1			1			4
근대	포레				1			1	1	1
	드뷔시	1				1			1	5
	라벨				1		1			2
현대	쾨베르크	1			1	1		1		4
	홀스트		1	1				1	1	2
	스트라빈스키					1			1	4
	프로코피예프				1			1		1
	오르프			1		1				2
	거쉬인			1	1	1				3
합계		11	21	21	27	35	10	16	19	160

위의 표에서 보면, 8종 교과서에서 모두 42명의 서양음악 작곡가에 의한 작품이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8종 교과서 모두 수록된 작곡가는 베토벤이었다. 그리고 바흐와 베토벤의 작품이 가장 많이 수록되었다. 천재 교과서에 서만 제외된 작곡가는 바흐, 드뷔시이며 5종에 수록된 작곡가는 헨델, 하이든, 슈베르트, 그리그이다. 또한 4종 교과서에서 수록된 작곡가는 비발디, 쇼팽, 리스트, 브람스, 차이코프스키, 무소르그스키, 시벨리우스, 쇤베르크, 스트라빈스키로 모두 9명이고, 3종의 교과서에서 수록된 작곡가는 슈만, 바그너, 베르디, 비제, 베버, 거쉬인, 오르프이고 2종 교과서에서만 수록된 작곡가는 모두 9명, 마지막으로 1종의 교과서에 수록된 작곡가는 모두 8명이었다. 특히 드뷔시 음악은 전 출판사에 거의 고르게 분포되었는데, 인상주의 음악을 이끄는 드뷔시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현대음악에 대한 비중도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곡자 별 분석결과 제 7차 교육과정은 고전음악 위주의 감상 과정에서 탈피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이지만, 그 배경 설명이나 작품에 대한 충분한 해설이 포함되지 않아 학생들에게 그 음악이 주는 감상의 효과를 못 느끼게 하였다. 그러므로 함께 호흡하는 감상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대중음악에 먼저 젖어 있는 학생들의 귀를 열게 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자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 4. 장르별

각 교과서에서 소개된 감상곡의 장르별 분류는 크게 성악곡과 기악곡으로 나뉘어 수록되고 있다.

성악곡의 비율은 오페라가 21곡의 수록으로 가장 많고, 미사, 칸타타와 민요, 오라토리오, 예술가곡 순으로 나타났다. 기악곡으로는 모음곡이 19곡으로 가장 많았다. 성악곡의 종류에서 교과서에 많이 수록된 순서를 살펴보면, 미사곡은 8종 교과서 모두에 제시되었고 오페라와 교향곡, 협주곡, 독주곡은 7종 교과서에 제시되었다. 6종의 교과서에 제시된 장르는 교향시, 모음곡, 관현악곡, 실내악곡이며 춤곡은 5종의 교과서에, 민요는 3종 교과서에, 예술가곡, 뮤지컬은 2종 교과서, 뮤지컬과 영화음악은 1종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

교학사 교과서에서는 바흐의 다성 음악 ‘푸가의 사단조 (g minor)’에 대한 해설을 연주 악기인 파이프 오르간의 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기악곡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또한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서는 오페라의 제 1막 사진을 줄거리와 함께 설명하고 제 1주제, 2주제, 3주제까지 악보를 제시하여

관현악에 관한 이해도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알아두기에서는 기악곡의 형식과 기악곡의 종류를 표로 만들어 설명하였다.

대한 교과서는 하이든의 현악 4중주 ‘중달새’의 제 1악장과 제 3악장의 시작 부분 악보가 제시되어 악장별 빠르기의 차이점에 대해 이해를 돕고, 비발디의 ‘글로리아’,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에어’, 헨델의 ‘라르고’의 작품설명, 감상곡의 악보를 제시하고 있어 기악곡과 성악곡의 차이점을 감상을 통하여 느끼게 해주었다. 또한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겨울 나그네’의 작품 설명과 함께 제1곡, 제5곡, 제6곡의 악보가 수록되었고 연가곡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있다. 모음곡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리그의 ‘페르퀀트’에 대한 설명과 <아침의 기분>, <아라비아의 춤>, <오제의 죽음>, <솔베이그의 노래> 가 삽입되었으며 홀스트의 ‘혹성’에 대한 설명과 제 2곡, 제4곡, 제6곡의 악보가 각각 4마디씩 소개되고 있어 모음곡의 통일성에 대해 이해도를 높였다.

두산 교과서는 ‘마르체로 미사(무반주 합창곡)’의 악곡 내용을 설명하면서 Kirye(우리를 긍휼이 여기소서), Gloria(영과), Credo(그리스도를 믿습니다), Sanctus(거룩 할지어다), Agnus Dei ( 신의 어린양)의 순서로 소개하고 있고 이 중 Kirye의 악보가 제시되어 미사곡 형식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관현악곡에 대한 설명은 베토벤의 ‘교향곡 제 6번 전원’의 제 1악장부터 제 5악장까지의 각 주제 선율, 연주되는 악기에 대해 설명하여 이해를 도왔다. 마지막으로 거쉬윈의 ‘랩소디 인 블루’는 악기별 주제 악보 제시 및 블루 음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재즈 장르에 대해 설명한다.

박영사 교과서는 헨델의 ‘나를 울게 버려두오’ 앞부분에 나오는 레치타티브의 악보를 제시하고 유래와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교학사에 소개되었던 바흐의 ‘사단조 푸가’로 푸가의 개념과 구조에 관해 설명하면서 주제, 응답의 악보를 제시한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제 23번 바단조 ‘열정’을 설명할 때에는 제시부 - 발전부 - 재현부로 구성된 소나타 형식의 대한 그림을 통해 알기 쉽도록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모차르트의 교향곡 ‘제 40번의 제 1악장’을 설명하면서 관현악 배치도를 통해 악기가 배치될 자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세광음악출판사 교과서에서는 곤도의 형식을 설명하기 위해 멘델스존의 ‘론도 카프리치오소’와 베버의 ‘무도회의 권유’를 비교 하였다. 먼저 론도형식에 대한 개념과 구성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론도형식의 구조 ( A-B-A-C-A-B-A )를 그림으로 수록하였다. 그 밖의 감상곡 중 성악곡은 서양음악의 오페라와 한국 음악의 한소리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국악과 접목시켰

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언급하지는 않겠다.

천재 교과서는 두산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팔레스트리나의 ‘마르첼로미사’를 수록하면서 대위법과 다성 음악의 특징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두산 교과서와는 달리 교황에게 곡을 헌정하는 팔레스트리나의 사진을 통해 이 곡의 작곡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바로크시대의 음악 장르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3개의 그림이 수록 했는데 첫째, 기악곡의 발전으로 소규모 오케스트라가 나타난 것, 둘째, 하프시코드와 오르간을 위한 연주곡 발달, 셋째, 귀족이나 교회에 고용된 작곡가에 대한 그림을 소개하여 그 시대에 발전한 음악 장르의 양식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제 5번 ‘황제’를 예로 들어 협주곡 악곡의 구성과 내용을 악장별로 자세히 설명하며 악보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단악장과 다 장형식의 기악곡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기악곡의 종류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마지막으로 대한 교과서에서 수록된 그리그의 ‘페르퀸트’가 이 교과서에서도 수록이 되었는데 대한 교과서에서의 설명과는 달리 고전 모음곡과 근대 모음곡을 제시하고 있어 모음곡의 종류를 보다 자세하게 설명한다.

태성 교과서에서는 먼저 하이든의 현악 4중주 ‘황제’와 베토벤의 교향곡 ‘운명’ 비교하여 감상곡으로 수록하였다. 이는 ‘황제’를 감상할 때 변주곡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제 2악장의 주제 악보와 사용되는 악기를 베토벤의 교향곡 ‘운명’과 비교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운명’을 설명 할 때에는 제 1악장의 시작동기의 모티브를 제시, 제 1주제와 제 2주제의 특징, 제 1악장과 제 4악장의 대조적인 면에 대해 살펴보면서 변주곡 형식과는 무엇이 다른지 비교 설명한다. 또한 ‘운명’ 제 4악장의 오케스트라 총보에 사용된 약자로 쓰여 있는 악기 이름을 살펴보고 오케스트라에 대한 설명과 형태, 악기 배치도를 그림으로 함께 설명하고 있어 관현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또한 ‘운명’ 제 4악장의 오케스트라 총보에 사용된 약자로 쓰여 있는 악기 이름을 살펴보고 오케스트라에 대한 설명과 형태, 악기 배치도를 그림으로 함께 설명하고 있어 관현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또한 태성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와는 달리 안익태의 <한국 환상곡>과 윤이상 <가사>를 수록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작곡가들이 어떻게 한국 기법을 활용하여 서양 음악에 접목 시켰는지에 대해 악보를 보고 살펴보고자 했다.

현대 교과서에는 두산 교과서와 천재 교과서에 수록된 팔레스트리나의 ‘마르첼로 미사’를 수록하고 있다. 또한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가단조 Op.54’를 소개할 때에는 천재 교과서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제 5번 ‘황제’에 대해 소

개 하면서 협주곡 악곡의 구성과 내용을 악장별로 자세히 설명하며 악보와 함께 제시하고 있지만 현대 교과서에서는 악곡해설과 악보만을 제시하여 다른 교과서 보다는 다소 설명이 미약하다.

이러한 현행 고등학교 8종 음악교과서를 장르별로 살펴본 결과 8종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감상곡은 크게 성악곡과 기악곡으로 나뉘고, 성악곡은 미사곡, 오라토리오, 예술가곡, 오페라, 칸타타 등으로 나누어 진 것을 알 수 있고 기악곡은 관현악곡, 교향곡, 모음곡, 실내악곡, 협주곡, 소나타, 오페라, 서곡, 독주곡, 춤곡으로 구분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13>과 같다.

**<표 13> 감상곡의 장르별 분류**

	분류	교학사	대한	두산	박영사	세광	천재	태성	현대	합계
성악곡	미사곡	1	2	1	3	3	1	2	2	15
	오라토리오				1				1	2
	예술가곡		1	1						21
	오페라	1	3	2	6	6	1		2	4
	칸타타			1		1		1	1	3
	민요				1	1	1			
	뮤지컬	1					1			2
	기타	1						1		2
	<b>소계</b>	<b>4</b>	<b>6</b>	<b>5</b>	<b>11</b>	<b>11</b>	<b>4</b>	<b>4</b>	<b>6</b>	<b>51</b>



기 악 곡	관현악곡	1		1	2	4	2	1	2	13
	교향곡	1	2	3	2	4		1	1	14
	교향시	2	2		3	1		2	1	11
	모음곡		5	3	4	2	1		4	19
	실내악곡	1	2	2		4	1	2	1	12
	협주곡	1		4	2	4		1	4	17
	소나타					1				1
	서곡	2	4		1	3				11
	독주곡	1		2	4	5		2	1	15
	춤곡			1	1	3	1	1		7
	영화음악						1			1
소계	10	15	16	19	31	6	10	14	121	
합 계	14	21	21	30	42	10	14	20	172	

장르별 분석 결과 감상곡 장르에서는 오페라가 13%로 가장 많이 분포 되었고 합창, 독주, 모음곡, 협주곡, 교향곡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였으나 항목과는 달리 다양한 장르로 편성되어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감상활동이 되도록 배려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편성된 자료의 활용도인데, 이것은 교사와 학생 모두가 함께 준비해가며 인지해야 할 것이다.

#### IV. 결 론

이 연구는 학교 음악교육의 목적과 교육내용에 따라 수록된 현행 고등학교 8종 음악교과서의 감상곡을 서양음악을 중심으로 시대별, 작곡가별, 장르별, 연주형태별로 분류하여 분석·연구함으로써 더 좋은 음악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고 교사들이 감상학습을 함에 있어서 편견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고등학교 8종 음악교과서는 감상곡을 서양 음악사의 흐름과 배경에 초점을 맞추어 분류하였는데, 각 교과서마다 시대의 구분을 다르게 하고 있다. 교학사와 세광은 6단락의 시대로 구분하였고 대한과 천재는 9개의 시대로 구분, 두산은 10개, 현대는 8단락의 시대, 박영사는 7단락의 시대로 구분하였다. 8종 교과서 모두 제시된 시대는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전기낭만, 후기낭만, 민족주의, 근대의 곡들이며 낭만시대의 곡이 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제 6차 개정 때는 수록하지 않았던 중세시대의 곡과 뮤지컬 및 영화음악을 수록하여 좀 더 다양한 시대의 음악을 접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감상곡을 작곡가별로 분류해 볼 때, 8종 교과서에는 총 42명의 서양음악 작곡가에 의한 작품이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8종 교과서 모두 수록된 작곡가는 베토벤이었고, 교과서에 실린 작품의 수는 바흐와 베토벤의 작품이 가장 많이 수록되었다. 바하는 7종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팔레스트리나의 ‘마르첼로 미사’는 제 6차 음악과 교육과정에 의해 수록된 음악교과서에 비하여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작곡가로 부각되면서 6종 교과서에 수록 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장르별로 분류하면, 크게 성악곡과 기악곡으로 나눌 수 있다. 전체적인 성악곡의 비율은 오페라가 21곡의 수록으로 가장 많았고, 미사곡은 8종 교과서 모두에 제시되었으며, 기악곡으로는 모음곡이 19곡으로 가장 많았다.

넷째, 연주 형태별 분류를 통해, 성악곡을 독창, 중창, 합창으로 나누고 기타에는 오페라와 뮤지컬의 연주형태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기악곡은 독주, 중주, 합주, 협주로 나누고 기타에는 연주 형태가 불분명한 춤곡과 극음악, 영화음악을 포함시켰다.

위 분류에 결과를 보면, 감상곡의 172곡 중 121곡이 기악곡이며 51곡이 성악곡이었다. 성악곡은 연주형태 중 독창이 18곡으로 가장 많았고, 합창은 8곡, 중창은 단한곡도 없었다. 기악곡은 121곡 중 72곡이 관현악 합주에 편중

되어 있으며, 독주 형태 곡 중에서는 피아노곡이 10곡, 중주형태의 곡 중에서는 현악 4중주곡이 6곡, 협주곡의 형태 중에서는 피아노 협주곡이 7곡의 순으로 수록되었다. 연주형태를 보면 세광음악출판사가 가장 다양한 연주 형태를 제시하고 있으나 8종 교과서는 관현악곡에 편중되어있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악곡의 소개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분석들을 통해 7차 교육과정은 각 출판사별 내용의 차이가 심하여 학교 학생들 간의 형평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닌다. 음악 감상을 각기 다른 분류와 용어로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지금 이루어지는 음악 감상교육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또한 전반적으로 7차 교육과정의 감상 곡은 필요이상의 목록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의 제재곡이어서 오히려 많은 학생들에게 부담이 된다.

그러므로 각 출판사에서 나타난 감상 내용의 편차를 고려하여 통일된 내용으로 형평성을 맞추어 가야하며 단순히 악보만 제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제시하여 그 곡의 의미에 더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감상 방법을 선택해 감상의 폭을 넓혀나가야 한다. 또, 감상시설을 보완하고 음악의 생활화를 위해 음악 교육을 장려하는 교육정책의 정비가 근본적으로 필요하며,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전인교육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지도자는 어떻게 감상할 것인지 그 요점과 목표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다양한 매체의 활용, 동영상 자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음반 제작 등을 통해 적극적인 수업이 되도록 한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사회적 배경을 이용하면서 미적 감수성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심미적 교육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으려면 감상이란 단어에서 주어진 올바른 의미를 먼저 알고 그 안목을 키워나가야 한다.

효과적인 감상 수업을 위하여 교육 과정과 수정, 감상곡의 악보와 음반제작이 함께 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더 효과적인 구성이 되도록 규격 맞추기에 급급한 현실에서 탈피하여 음악에 대한 편안함을 먼저 느끼게 해야 하여 스스로 즐기며 향유할 수 있는 정신적 활동을 이끄는 교육 과정이 되도록 더욱더 능률적이고 한 층 더 높은 질의 교과서 제작이 되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 단행본 >

-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음악』, 대한교과서,(2000).  
\_\_\_\_\_,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음악』, 대한 교과서,(2001).  
\_\_\_\_\_,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음악』, 대한 교과서,(2002).  
\_\_\_\_\_, 『제 7차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  
박세윤, 『음악용어 사전』 세광음악 출판사,(1986).  
신도웅, 『음악 교육 철학』, 세광음악출판사,(1987).  
송진범, 『음악교육학』, 학문사,(2000).  
이경환, 『음악교수법』, 세광음악 출판사,(1996).  
이동수, 『음악감상 심리에 관한고찰』, 제주대학교 학술집,(1982).  
이석원, 『음악 심리학』, 정음사,(1980).  
이성삼, 『음악 교수법』, 세광음악 출판사,(1996).  
이홍수, 『고등학교 음악과 교사용 지도서』, 두산동아,(2001).  
\_\_\_\_\_, 『음악교육의 현대적 접근』, 세광출판사,(1990).  
양일용, 『음악감상을 위하여』, 태림출판사,(1986).  
유덕희, 『음악교육학 개론』, 학문사,(1982).  
유재봉, 『삼미적 음악감상을 통한 창의적 표현능력 신장의 지도방안 연구』, 태림출판사,(1995).  
채현경, 최재천 옮김(Jourdain, Rovers), 『음악은 왜 우리를 사로 잡는 가』,(2002).  
한국음악교재연구회, 『음악교육과 인간형성』, 세광음악출판사,(1987).

### < 교과서 >

- 고춘선 · 홍종건 『고등학교 음악』, 세광음악출판사(2003).  
백병동 · 최현 · 문경해 · 홍기순 · 김은하, 『고등학교 음악』, 천재교육 (2003).  
이강울 · 주광식 · 김금수 · 황선, 『고등학교 음악』, 도서출판 태성 (2003).  
이성수 · 이성재 · 김영목, 『고등학교 음악』, 대한교과서 (2003).  
정영택 · 허화병, 『고등학교 음악』, 교학사 (2003).

## <논문>

- 곽호진.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비교 분석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6 쪽(2005).
- 김창근.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의 분석 및 고찰 - 제재곡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9쪽 (2001).
- 김효주. 『고등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의 비교분석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4쪽(2002).
- 박은진.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피아노곡 감상 지도안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8쪽 (2002).
- 박현준.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1학년 8종교과서 분석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2쪽(2003).
- 이민향. 『심미적 음악교육의 관점에서 본 초등학교 음악수업 실태 분석』. 대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67쪽(1992).
- 이연경. 『감상능력 육성을 위한 음악과 학습지도방법에 대한 연구』. 서울 한국음악 교육학회, 음악교육연구 15, 1-52쪽(1997).
- 이유중. 『심리적 음악 체험을 위한 교수-학습에 대한 지도방안』.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69쪽 (2005).
- 임윤진. 『고등학교 음악 감상영역 비교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60쪽(2004).
- 홍수진. 『감상수업을 위한 체계적인 곡 선정에 관한 연구 - 서양음악을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15쪽(1999).
- 홍후조.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실행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1-250쪽(1999).



##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음악교육	학 번	20048178	과 정	(석사), 박사
주소	한글 : 김현지    한문 : 金炫枝    영문 : Kim Hyun Ji				
연락처	E-MAIL: nanwang99@hanmail.net				
논문 제목	한글 :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음악교과서 감상 영역 분석연구 - 서양음악 중심으로 - 영문 : A Study on Comparison and Analysis of Music Curriculum in High School by the 7th Curriculum - Focused on Western Music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 ○ )    반대 (   )

2008년 8 월    일

저작자: 김현지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